

엘빈 토플러 박사를 초청하게 된 뒷 이야기



박종현 IPAK/자문위원

1. 초청 개요

1. 협회에서는 당초 구상했던 대로 석학은 「다니엘? 벨」과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를 통해 명성이 자자한 미국의 석학 「엘빈?토플러」 박사 중 누구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를 논의하였으나 근래 널리 알려진 「엘빈?토플러」 박사를 초청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이해를 넓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엘빈?토플러」 박사는 지적소유권을 주장하는 인사로 심지어 자기의 역작 “제3의 물결”까지 해적판을 발행하는 등 지적소유권을 무시하는 한국은 싫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엘빈?토플러」 박사는 한국의 국가기관이나 심지어 한국에서 오는 저명인사 또는 한국의 기자들까지 만나주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절하는 입장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약력 : •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통신기술(주) • 한국축보화학연구소 • 현재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 자문위원

이러한 일은 경험도 없이 의욕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려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충분한 정보와 비용이 먼저 필요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 것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봉착한 우리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이며 컴퓨터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일을 하는 순수한 집단으로 세계적 추세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지적소유권 문제는 무려 40여 차례의 FAX 연락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켰다. 이러한 일은 초대 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장 노중호와 필자의 열화 같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초청 비와 강사료 등 경비가 최소한 10만 불은 필요했으나 가당치 않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부족하여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다 7일만에 10만 불이라니 이것은 「엘빈? 토폴러」 박사가 거액의 초청비용을 핑계 삼아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문사의 해외파견 기자들을 상대로 설득한 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었다. 그들의 정보에 의하면 「엘빈?토폴러」 박사의 경우 1시간에 2-3만 불을 받으며 우리가 1주일에 10만 불이라면 오히려 획기적으로 적은 액수라는 것이었다.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보화에 대하여 남 다른 애착을 갖고 계시는 체신부차관 오명박사를 방문하여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도움을 청했다. 오 박사는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다. 결국 전경련과 KIST, 전자통신연구소(지금의 ETRI), KBS 등 예산에 여유가 있고 전산분야에 관련이 깊은 기관들과

직접 통화하여 협조토록 이야기가 되어 경비문제는 시원스럽게 해결되었다.

다음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할 언론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여 평소 전산업무에 관심이 많은 한국경제신문 이규행 사장을 찾아뵈었다. 이규행 사장은 「엘빈?토플러」 박사로 부터 면담을 거절당하고 칼럼요구도 들어주지 않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전후사정을 다 들은 이사장은 즉석에서 동의하고 먼저 경비도 전액 선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적 석학 「엘빈?토플러」 박사의 강연회는 1986년 9월 6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었는데 입장권이 부족하여 일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것은 정보산업에 남다른 관심의 표시라기 보다 유명한 「엘빈?토플러」 박사의 강연이라도 한번 들어보자는 현상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입장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힐튼호텔의 강연장과 통신공사의 구내방송을 직접 연결하여 전 직원이 앉은자리에서 강연을 들도록 한바 있다.

그런데 86년 9월 4일에 엘빈 박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초청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9월 6일 사무실로 인사차 방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적 석학을 맞을 장소로는 나의 방은 너무 비좁고 마땅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통신공사를 방문하면 이우재 사장님을 먼저 방문토록 하고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만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양의 질서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우재 사장님에게 토플러의 그간 경력과 우리 통신공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도록 말씀드렸으나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느냐고 하여 우리 측에서는 오명차관을 뵈도록 선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니 한 건물에서 두 사람이

나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방 방문도 거절하고 오명차관 방문 때 함께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결론지었다. 참으로 나에게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결과가 되었다. 토플러 박사의 강연회는 연일 초만원을 이루었고 9월 12일 마지막 강연회를 끝을 냈으나 토플러도 즐거웠다고 말을 하고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여 우리 협회의 첫 번째 자랑스런 명예 회원이 되었다. 그 뒤에도 오명박사, 이용태 박사, 성기수 박사, 세종대 최영환 명예 교수, 서정욱 장관, 경상현 장관, 양승택 장관, 남궁석 장관, 이상희 박사, 박성득 전자신문사장 등이 차례로 명예회원이 되어 협회를 도와 주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토플러의 초청 강연이 무난하게 끝을 맺고 숨을 몰아설 여유도 없이 초청 비 10만\$이 모일간신문 까십 란에 제기 되었다. 가슴이 덜컥 무너지도록 겁이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몇 일 뒤 단거리 선수 「칼?루이스」가 초청 시범경기로 100m를 10초 동안에 뛰어 10만 불을 받아 초점이 그 곳으로 옮기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다.

2.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열다.

「엘빈?토플러」박사의 초청 강연회를 통하여 고위직의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되었다고 생각되나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우리 전문가들은 고위직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의 인식이 더 필요했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직접 국민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 등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름하여 「한국소프트웨어 전시회」를 1987년 6월24일부터 5일간 KOEX 대서양 관을 빌려 전시하자고 했다. 사실은 전시회를 주도하는 나도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여야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한국소프트웨어 전시회" 공고부터 신문에 게재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관련기관의 고위직 인사나 공무원, 심지어 컴퓨터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전문가들도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문의해 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전시회에 직접 오셔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드웨어는 알 것 같으나 소프트웨어는 개념구성이 되어있지 않아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 무엇을 전시하여 보여준다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 그랬을 것으로 이해는 된다. 당시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다만 전산업무도 과거 손으로 하던 일을 일부 계산기나 타자기로 찍어내듯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우리 부서에서 엘리트로 자부하던 모국장님께서 전산 소를 방문하여 소프트웨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현재 전화요금 운영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보여 드리니 이것 말고 동판을 보여 달라고 하여 인쇄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혼자서 속으로 웃었던 일도 있었던 형편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분들에게 특별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전시장에 가 보면 손님을 끌기 위하여 전시장을 화려하게 꾸미거나 마이크를 통해 큰소리로 외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니 손님은 그곳으로 몰리고 돈이 없는 기

업이나 개인은 실제 좋은 작품을 전시해 놓고도 아무도 보와 주지 않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 전시회는 내용을 정확히 알린다는 뜻에서 전시장 구성도 자금이 풍부한 회사의 규모에 구애되지 않고 똑 같은 크기로 전시토록 하였으며 일체의 행동마저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문가협회는 직원도 없어서 회장인 내가 혼자서 직접 구상하고 배치도와 그림까지 그리는 등 고생을 많이 한 생각이 새삼스럽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어 구경 차 찾아와 전시회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이 전시회는 우리 협회가 앞으로 자원조달을 위해 계속 유지해 갈 적절한 업무라고 자부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3. 「소프트웨어 공모전」 함께 개최하다.

우리나라에 전산업무가 도입 된지 20년이 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초창기 품었던 희망과 기대를 버리고 모두가 실의에 빠져 있었다.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를 초빙하여 강연을 하고 또 전시회를 통하여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희망을 불어넣겠다는 우리가 스스로 전문가들의 사기를 버릴 수는 없었다. 전문가들이 떠나버리면 꿈도 희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분야 전문가들만이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공모전」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수상한 작품은 소프트웨어전시장안에 특별코너를 마련하여 함께 전시함으로써 공모전 참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금도 무려 2천만원이나 하는 거액을 걸어 전문가들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돈은 한푼

도 없는 우리가 참으로 무모하게 상금을 제시한 것 같지만 쓸어져 가는 컴퓨터 전문가들을 다시 제자리에 서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전산 업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뒤에서 말없이 후원해 주신 한국통신공사의 간부 및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드려야 하겠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긍지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4. 6월 24일을 「정보의 날」로 정하다.

정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진 정보 산업계 인사들이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정보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심점은 정보와 관련이 깊은 컴퓨터가 주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67년 3월에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 1401 이라는 기종이 처음 도입되어 준비단계를 거쳐 1967년 6월 24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참석 컴퓨터를 개통시킨 날을 기념하여 "6월24일"을 「정보의 날」로 정하고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축배를 높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87년 6월 24일 제1회 「정보의 날」은 컴퓨터가 도입된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정보 성년의 날」로 정하고 행사에는 정부 고위직 인사와 정보 산업계 인사들이 무려 600여명이나 참석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고 부담이 없는 이 행사가 연례적이면 좋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였다.

「정보의 날」도 협회가 정부에 반납할 터이니 「정보

문화의 달」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무처를 통하여 총리실에 올리니 그렇지 않아도 근래 “각종 날”이 너무 많아 이것을 정리하라는 민원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으니 다음기회로 미루자고 하여 지금도 IPAK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정보문화의 달」보다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정보의 날」은 회수가 1회 더 빨리 가는 것은 이러한 사유 때문이다. 정보문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때에 맞추어 이것도 국가 행사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5. 『정보문화의 달』 제정을 건의하다

우리 정보기술전문가협회에서는 86년도 엘빈토플러 초청강의, 87년도 「소프트웨어 전시회」 「소프트웨어 공모전」 「정보의 날」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정보산업발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다른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산업관련 테니스대회나 컴퓨터산악회에서 주도하는 정보사업인 등산대회, 그리고 정보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인 골프대회 등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모든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함께 행사를 하면 정보산업 종사자의 사기도 진작되고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져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최소한 정보주간이나 정보월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일은 어느 단체나 개인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주도하여 연례적으로 수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이견을 당시 체신

부(지금은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도 우리 협회의 성공사례를 보고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당시 정보라는 용어는 정보부와 관련하여 체감 상 좋지 않고 특히 일반에게 거부감이 크다고 걱정을 하면서 수일간 논의하였으나 얼마 후 체신부 박성득 정책국장이 「정보의 달」에 문화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정보문화의 달」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또 이 인포 과장은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어 가동을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고 온라인과 관계가 깊은 한국통신공사의 전화자동화가 6월 30일 마지막으로 개통되었음으로 이를 기념하여 6월로 하되, 정보를 취급하는 학회 협회 기관들이 많고 또 하는 일도 분야별로 다양하게 많으니 최소한 1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주간이 아니라 6월 한 달을 「정보문화의 달」로 하기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다만 「정보의 날」은 부처별로 「각종의 날」을 정하여 너무 많다고 여론이 있으니 절차상 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정보처리전문가 협회의 고유 업무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문화의 달」이 IPAK에서 시행하는 「정보의 날」이 1회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이다. 정보문? ??달이 제정되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문화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이를 집행할 재단법인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조직하였다. 바야흐로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다.